

“새만금을 첨단전략산업의 성장 거점으로 만들기 위해 순국 선열의 고귀한 희생 받들어 사업 속도 높이겠다”

- 새만금개발청, 6월 호국보훈의 달 맞아 국립대전현충원 참배 -

- 새만금개발청(청장 문성요)은 호국보훈의 달 6월과 제71회 현충일을 맞아 국립대전현충원을 찾아 참배했다고 6월 4일 밝혔다.
 - 이날 참배에는 문성요 새만금개발청장과 간부 직원 20여 명이 참여했으며, 현충탑에 헌화와 분향하며 국가와 민족을 위해 희생하신 순국선열과 호국영령들을 추모했다.
- 문성요 새만금개발청장은 “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숭고한 뜻을 되새겨 국책사업인 새만금 개발을 더욱 막중한 사명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추진해 나갈 것”이라면서,
 - “새만금은 최근 현대차그룹과 체결한 9조 원 규모의 투자 협약을 비롯해 대한민국의 미래 신산업의 중심지로 도약하는 중대한 전환점에 서 있는 만큼 명실상부한 국가 균형 성장의 선도 모델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원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.”라고 말했다.
- 한편, 새만금개발청은 매년 현충일에 국립대전현충원 등 국립묘지를 찾아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을 추모하며, 새만금 사업 추진에 대한 의지를 다지고 있다.

담당 부서	운영지원과	책임자	과 장	이 범	(063-733-1006)
		담당자	사무관	이호열	(063-733-1050)